다변화 시대에 요구되는 학생운동의 사회학

학생운동을 위한 기획시리즈(5) — 학생운동 사상의 변화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학생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 때라서 학생운동은 격동의 시대에서 항상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선도성은 정치 및 사회 운동의 사상, 이론 논쟁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선도성으로 이어졌다. 근현대 한국 사회 운동의 주요한 계기와 변화에는 항상 학생운동의 선도적 역할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째서 학생운동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토록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그렇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선도성은 우리뿐 아니라 식민지, 예속상태의 제3세계 사회운동에서 흔히 나타난다.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 역할을 해온 구라파 경우와 달리 전 산업단계에 놓여 있는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의 사회에 있어서 지식인과 학생은 흔히 민족의 선도층으로 반제 민족 해방운동의 첨병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예로써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의 5·4운동이라 할 수 있다. 주은래를 위시한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부는 상당수 이러한 중국 학생운동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3세계에서 학생운동의 독특한 위상은 구라파에서 볼 수 없는 청년학생운동이라는 독특한 부문 운동을 이들 지역에서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에서 이들 운동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한국의 최근역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계속 집권하여 온 군부정권과 이에 대항하여 온 학생운동 간의 공방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말하자면 학생운동과 정권은 한국판 30년 전쟁을 치루어 온 셈이다. 다만 1980년대 이래 노동운동이 대중운동화 하면서 학생운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항쟁이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 아래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운동의 정치적 역할은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면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의 사상과 이념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향후의 발전전망은 과연 어떠한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학생운동의 원류라고도 할 수 있는 4·19학생운동의 경우를 볼 때에 이것이 어떠한 목적의식하에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4·19학생운동의 사상, 이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60, 70년대의 학생운동은 무엇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라는 성격을 가졌지, 무엇을 지향한다는 목적의식성에 있어서는 불명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식성이 분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80년대 들어서 광주민중항쟁의 좌절을 겪고 난 다음부터라 할 수 있다. 60, 70년대의 제반 한계 속에서 명확한 이론적 자기표현이 크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60, 70년대의 이른바, "조직사건"으로 나타나는 비합법 전위조직 결성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상, 이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이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법 전위조직이 대중적 학생운동에 과연 어떠한 이론적 지도와 사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구명되어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70년의 후반기에 이르러서 80년대 사상, 이론투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내부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지향점과 한국사회 변혁의 경로를 둘러싼 모색은 크게 보아 두가지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나는 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학생운동의 민중지향성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민중지향성은 종래의 부정선거 반대, 삼선개헌 반대 등 정치투쟁 일변도에서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공활, 농활 등의 생산현장으로의 접근과 근로자 야학운동을 통한 초보적 형태의 노동자와의 연대, 결합을 모색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다른 하나는 70년대 후반의 유신체제하에서 일어난 민족 문제 내지는 통일에 관한 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의 유신체제하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관점은 서로 대립, 갈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중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형성됨으로써 80년대의 운동권 내지 진보진영의 격렬한 사상, 이론적 논쟁, 대립, 그리고 급기야는 분열까지를 예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중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의 대립과 모순은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관념 속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는 한국 사회와 한국 현대사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대립과 모순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러한 70년대 한국사회 모순의 격화는 결국 80년 광주항쟁을 초래하였으며 광주항쟁의 좌절을 통한여 이러한 모순은 더욱 확대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항쟁 이후 학생운동의 향후 방향에 관한 치열한 모색과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최초의 표현으로써 소위 무림 대 학림의 논전이 전개되었고 이 논쟁은 이후 백화제방식으로 전개된 학생운동 노선 논쟁의 원형을 이룬다고 말해져 있다. 학생운동의 전통적 무기인 시위투쟁을 통한여 기층민중의 불기를 유발해 낸다는 학생운동의 정치적 선도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위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대중사업을 통한여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고 확충하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대중노선을 강조하는 입장과의 논전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70년대 초중반 이래 시위투쟁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위투쟁을 자제하고 현장 특히 노동현장으로 존재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 속에 내재되어있던 것이었다.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클릭는 순서

1. 문제제기-현실을 읽자
2. 집회·시위 양식의 변화
3. 문예운동의 변화
4. 학생회의 변화
5. 학생운동 사상의 변화
6.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학생운동은 다시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참신성을 갖고 진보운동의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민족·민중운동 대립은 사회적존재와 의식의 괴리 반영
사회현상 폭넓은 이해로 새로운 사상 정립해야

하편, 출판에서의 이념적 금제의 해제를 정권에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상, 학문의 자유문제는 70년대와 비교할 때 엄청난 진전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약해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상, 학문의 자유문제가 아직도 한국사회 민주화의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학생운동의 문제의식의 치열성은 맑시즘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분단시대 최후의 금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사회주의의 지도 이념 즉 주체사상에 대한 천착과 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사상, 이념의 금제가 존재하나 소위 운동권은 엄청난 댓가를 치루면서 스스로 이러한 한계를 무시 내지는 극복하여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 지적풍토의 변혁을 주동해낸 것은 바로 학생운동이었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사상의 이론적 천착은 학생운동 내부의 토론을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을 위시한 다른 사회운동에 사상 및 노선논쟁을 촉발시켰으며 지식인들 간의 논쟁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이론적 선도성은 사회운동 및 진보진영 일반에 일정의 학생운동 추수주의를 유발시키기까지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지도를 담당해야할 종교계나 재야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계층까지 요즘 학생운동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논의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80년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내부논의를 가장 빨리 입수하는 사람이 토론을 가장 자신있게 주도해 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어찌보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이나 학생운동에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진보적 논의가 오랫동안의 그간의 한국사회의 구조와 이로 인한 사회의 지적 역량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80년대는 그 와중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대 속에서 학생운동의 논쟁은 C·N·P, NL·CA, ND·PD의 큰 구도를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권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이와 병행하여 사회구성체 논쟁이 진보학계에서 진행되었다. 이제와서는 이러한 사회구성체론과 변혁론의 토론이 가져온 금정적 측면보다도 오히려 이 논쟁이 가진 사변적 폐해가 지적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사회과학의 지평을 넓힌 측면을 인정하는데는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여겨진다.

학생운동은 80년 광주항쟁 이후의 암울한 시기에 그 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좌절과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민주화 운동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학생운동은 80년 이후의 개헌투쟁과 87년 6월 항쟁의 가장 주요한 역량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학생운동은 그 이전 시기와 다른 학생운동내에서의 위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80년대 들어 나타난 노동운동의 급속한 양적, 질적 성장때문이었다. 80년대 학생운동 논쟁의 원형을 이루었는 두립-하립 논쟁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운동의 주축으로 그 출현이 예정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이후 근 30여년에 이르는 사상, 학문의 통제에서 불때 비롯된 사상, 학문의 세대간 격차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80년대 전반에 이르는 약 10여년의 시간 속에 전세계의 온갖 진보적 사상, 이념을 수용하는 과정은 당연히 갖가지 형태의 지적 소화불량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이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념적 급진화, 교조주의 등장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하여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광범한 대중으로부터의 신뢰의 상실, 고립을 초래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 되어있는 민중운동과 학생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히 시킬 수 없다.

80년대 들어 강력한 노동운동이 사회전면에 부각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민족문제나 민주화 문제 못지 않게 혹은 이와 병행하여 사회적 모순 혹은 계급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구도 속에서 학생운동의 사회학이 새롭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계급모순이 점차 첨예화하는 가운데에서 민족의 선도층으로서의 청년학생의 위상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실 속에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느냐는 학생 그 중에서도 대학생 층이 어떠한 사회적 속성과 신분을 가지느냐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70년대 이래의 학생운동은 잠재력으로만 존재하던 민중운동을 깨워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단 깨어난 민중운동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의 상호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는 비단 학생운동에게만 던질수 있는 물음이 아니라 민중지향적 교회운동 또는 재야운동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져야 하는 물음일 것이다. 이는 또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기치하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던 각 부문운동이 반독재 민주화의 과제가 해소된 이후에 자기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여야하느냐는 물음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선을 거쳐 88년 학생운동이 조직통일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나선것은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층으로서는 노동운동과 같은 자신과 사회적 귀속성을 달리할 수 있는 특정계급의 과제보다는 통일이나 민족자주화 같은 자신이 당연히 그 주체의 하나인 민족적 과제 혹은 민주화와 같은 시민적 과제에 보다 더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운동내에서도 PD로 일컬어지는 보다 민중운동 지향적 분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내에서 NL, PD운동 등 민족운동론과 민중운동론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적 존재와 의식의 괴리 내지는 모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간에 민족운동과 민중운동이라는 이런 분리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는 비람직한 것인가. 이런 식의 분업관계가 성립될 때의 이는 노동운동의 조합주의화와 학생운동의 소시민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88년 이후에 학생운동의 이론, 실천속에서는 과거와 같은 민중지향적 성격이 약화되고 민족운동 지향적 성격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쩌보면 보다 큰 문제는 어느 정파가 보다 큰 세를 얻느냐가 아니라 대학생층 전반이 보수화하고 소시민화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NL이든 PD든 존립의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를 대중은 점차 냉담하고 무관심해지는데 운동권은 아직도 과거의 정세관 언어를 사용해 더욱 대중과 유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부정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동을 둘러싼 제반환경 즉 한국사회와 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회운동 일반이 변화의 폭과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정파의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이는 "낡고 교조적"이라는 평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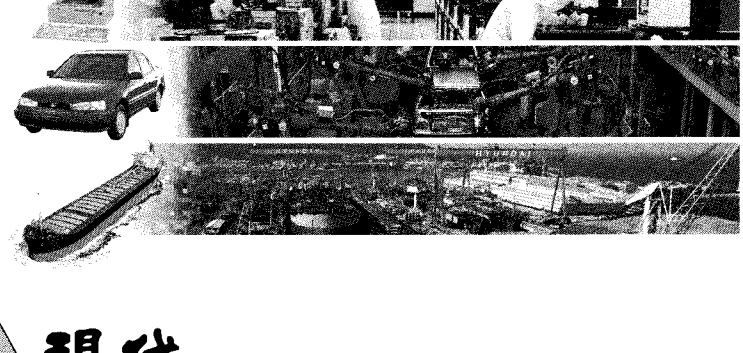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 진보진영은 고전을 재해석하고 포스트 맑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등 포스트 시대의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광주항쟁이나 6월 항쟁은 과거의 전설과 신화로만 남을 지 모른다. 학생운동은 이제 단 시일 내에 가두에서 이 신화를 재현하려는 낭만을 꿈꾸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운동은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사상, 이념을 걸증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과거에 그러했던 것과 같이 어느 때에 다시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참신성를 가지고 진보운동의 전면에 부상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운동이 없는 역사란 없는 것이며 학생은 영원히 역사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

이 종 오
〈계명대교수·사회학〉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1%의 마지막 정성"
現代가 추구하는 기업문화 정신입니다



99%가 100%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1%의 마지막 정성만이
오직 완벽한 기술과 제품을 탄생시킵니다.
이는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現代의 수출기업 정신이기도 합니다.

現代